



3면

특별지자체 3대 개편 방향 집중 논의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음 10월 12일) 제38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문 열다

남원 고죽동 일원에서 건립
'산후케어센터 다운' 개원
신생아실 등 13실 규모
내년 1월에 정식 운영
전북 동부권 보건 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 기대

남원시에 전북 동부권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한 보건 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지난달 28일 고죽동 일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다운은 도내 산후조리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남원시장 공약사업으로, 총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남원시 고죽동 200-4 일원, 대지면적 3,764㎡ 부지에 연면적 2,41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다운은 총 13실 규모로 조성됐으며, 신생아실, 맘카페,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식 운영 시기는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관리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며, 남원의료원이 맡아 운영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지난달 28일 남원시 고죽동 일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산후케어센터 다운은 내년 1월에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의원, 인근 지자체장, 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임산부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개원식을 축하했으며, 특히 시민과 임산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련돼, 남원시를 넘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전체의 출산 진화 환경 조성을 상징하는 자리가 됐다.

이용은 전북 동부권 거점시설로 건립됐지만, 도내 전체 산모와 지리산권 지자체 산모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으며,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원으로, 전북도 거주 산모는 30% 감면, 남원시 거주 산모 50% 감면, 지리산권 산모 및 남원 시민 자녀(배우자 포함) 10%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특히 시설에서는 △산후 마사지 △산후요가 △소아과 △산부인과 건강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 맞춤형 산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 제1호 공

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된 만큼 이제 남원과 전북 동부권 산모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안전하게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출산과 돌봄 정책을 이끌 든든한 요람이 생긴 만큼 앞으로도 남원시는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도시, 나아가 지리산권 대표 출산·육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도' 전북 농민들 큰 혜택

민주 이원택 의원 주도 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될 경우 제도적 제재 규정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도인 도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이 법안의 신속한 심사·조정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필수농자재법'은 최근 비료·사료·면세유·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직·간접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주도한 법률안은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가격단합 등으로 인한 단가인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감증을 위한 회계법인 검증을 허용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될 경우 제도적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부담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제도는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

원 체계가 미흡해, 국제 정세 변화·전쟁·수입 원자재 급등·기후위기 등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필수농자재법'의 핵심 내용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신설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가격 폭등 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의무 작성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인상 시 최대 5년간 지원대상 제외 △필수농자재·원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재생에너지 활용 농가 우대지원 △거짓·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 △중복지원 제한으로 재정 누수 방지 등이다.

이번 법률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조정·조정 통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비료·사료·에너지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폭등은 농업경영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가가 공급망 위험에 따른 농여경영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인들이 불안 없이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완주군의 회를 방문해 유의식 의장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지역 라이온스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향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완주 대도약, 새로운 미래 100년'

전북 4대도시 진입 기념·종합운동장 기공식 열어

완주군이 지난달 29일 용진읍 운곡리 완주테니스장 일원에서 '완주 대도약, 새로운 미래 100년 열다'를 주제로 전북 4대도시 진입 기념 및 종합운동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과 군민 등이 참석해 완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기념식, 전북 4대도시 진입 및 종합운동장 경과보고, 선포 퍼포먼스·시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완주군의 전북 4대도시 진입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이 공유되며 군민들과 함께 완주의 변화와 비전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4대도시 진입 선포 퍼포먼스와 종합운동장 시삽식에서는 군민 대표와 내빈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전북 4대도시 완주, 새로운 미래 100년 완주'를 향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공식이 열린 종합운동장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용진읍 운곡리 완주테니스장 일원에서 전북 4대도시 진입 기념 및 종합운동장 기공식이 열렸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1만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야외공연장, 산책로, 생활밀착형 공원 등을 갖춘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는 군이 추진하는 종합스

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한편, 완주군은 종합운동장 조성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도내 청각·언어장애인 119 접근성 'UP'

전북소방, 수어통역센터 협약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재난 대응 시각지대를 줄이고 긴급상황에서 의사소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각·언어장애인 맞춤형 119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수어통역센터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청각·언어장애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수어통역센터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119안심콜 등록 안내 확대에 사전 정보 확보 △전북119상담록 활용으로 비음성 신고 창구 강화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 보급으로 화재 인지 시각 해소 △수어 중심 안전교육 콘텐츠 배포와 홍보 확대 △소방공무원 수어 교육 확대로 현장 소통 역량 제고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